

##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 \*\*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논문초록

루터의 법사상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두 왕국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글은 “세속권세: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여야 하는가”이다. 여기서 루터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분하고 양자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는 복음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루터는 법의 세 가지 용도를 말하고 있다.

리처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루터의 사상이 반율법주의로 인도하며, 문화적 보수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제시했다. 루터가 법의 세 가지 용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속권세에 대해서 불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루터의 법사상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검토를 촉구하게 한다는 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를 논증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 세속법의 궁극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준다는 점, 법의 다양한 기능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주제어:** 마르틴 루터, 두 왕국론, 법의 세 가지 용도, 신법, 자연법, 세속법

---

2009년 6월 30일 접수; 8월 4일 수정; 8월 22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09년 6월 16일에 개최된 제4회 국제기독교대학교육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토론회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을 맡아 여러 가지 귀한 지적을 해주신 고신대학교 임창호 교수께 감사드린다.

\*\* 이 논문은 이화여대 신입교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음(과제번호: 2007-1025-1-1).

- I. 서론
- II. 두 왕국론의 개요 및 함의
- III. 두 왕국론에 대한 니버의 평가에 대한 검토
- IV. 루터의 법사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V. 결론

## I. 서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연구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체계에 속하며, 특히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루터의 신학사상은 독일법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제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루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세속권력의 한계에 관한 루터의 논의는 오늘날 종교의 자유,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이처럼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학자들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나 주로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고(예를 들어 윤웅진, 1993; 김기련, 1997; 황정욱, 1999; 김주한, 2000; 장문강, 2000) 법사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학자에 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신교 법사상에 대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으나(이국운, 2006; 홍기원, 2007; 류지영, 2007; 한철, 2008).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sup>1)</sup>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루터의 모국인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1)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권호덕(2003)을 들 수 있다. 법학자에 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가 법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Steinmüller, 1963; Witte, 2002; Berman, 2003)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루터의 법사상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두 왕국론'(Zwei Reiche Lehre)이 그리스도인의 '이원론'적인 삶을 고착시키고, 세속권력에 대해 무비판적인 성향을 낳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에른스트 트뢰치(Ernst Troeltsch)에 서부터 연유한다.<sup>2)</sup>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 복음주의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의 『그리스도와 문화』(Niebuhr: 1975)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니버는 이 책에서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sup>3)</sup> 니버는 루터의 사상이 이 중에서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루터의 사상이 현대의 이원론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루터의 사상은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유형에 해당하는 칼빈의 사상과 대조를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그의 원저작을 중심으로 두 왕국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러한 두 왕국론이 갖는 함의를 법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검

2) 루터의 신학은 사회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도모하고 개인의 경건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현대적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에른스트 트뢰치이다(Troeltsch, 1931; translated by Wyon, 1992: 515-76 참조). 이러한 트뢰치의 입장은 라인홀드 니버와 위르겐 몰트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김주한, 2002; 김주한 2003 참조).

3) ①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② 문화의 그리스도, ③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④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 ⑤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가 그것이다.

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루터의 두 왕국론에 대한 리처드 니버의 평가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루터의 두 왕국론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 II. 두 왕국론의 개요 및 함의

### 1. 두 왕국론의 개요

두 왕국론은 그의 법사상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Steinmüller, 1963: 37). 이 이론을 담고 있는 그의 대표적인 논문으로 "세속권세: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여야 하는가"를 들 수 있다.<sup>4)</sup> 이 논문은 루터의 정치논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루터는 이 논문에서 '1520년부터 거의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의 정치 이론의 중심주장

4) 이 논문이 쓰여진 시기는 1522-23년이다. 이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루터는 1517년에 95개조를 발표하면서 면죄부를 비판하였고, 이후 1519년에 라이프치히에서 로마 교황청을 대표하는 요하네스 에크와 토론을 벌이면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보다 견고하게 다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루터는 '무엇이 사람을 자유하고 의롭게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자유하고 의롭게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게 된다. 또한 교회법의 전통이 교황수위권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가톨릭 교회법 서적들을 불태우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던 루터는 선제후 기사단의 습격을 받아 1521년 5월부터 1522년 3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바르트부르크성에서 선제후의 보호 가운데 지내게 된다. 이후 그는 개혁의 책임감을 갖고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게 되고 이 무렵 "세속권세: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여야 하는가"를 작성하게 된다. 이 시기는 농민들이 선제후들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시기이기도 했다. 루터로서는 농민반란을 접하여 자신의 정치적, 법적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자세히는 Schwarz(1986: 106-279) 참조.

들의 기초가 되었던 많은 기본 원리들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Thompson, 1984: 65). 이러한 평가는 루터의 법사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라인하르트 슈바르츠는 "세속적인 법 생활까지도 통제하고 있던 전통적 교회법으로부터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해방은 복음을 새롭게 인식한 자가 세상의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했다"고 지적하면서 위 논문도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다(Schwarz, 1986: 266-67). 이러한 분석은 위 논문을 정치논문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법률논문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문의 제1부에서 루터는 우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야 한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두 번째 부류는 세상의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이 사람들은 세속의 칼이나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세상의 나라에 속하며 법아래 있다....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두 정부를 정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드는 영적 정부와 비그리스도인들과 악한 자들을 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겉으로 평온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세속정부이다 (Luther, Dillenberger편, 1961: 368-70: 441-43).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에게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듣는 것처럼 법이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주어졌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법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을 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인이거나 경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죄악되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의 구속들을 그들 위에 부가함으로써 그들이 감히 자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외적으로 악한 행위들을 범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이와 아울러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 24절에서 법에 또 하나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가르쳐서 겸손하게 은혜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다. (Luther, 1961: 442)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나라는 날카롭게 구별되어야 하며 둘 모두가 존속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경건을 낳기 위하여, 다른 하나는 외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악행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 세상이 모두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면 더 이상 세속정부나 법은 필요 없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이 경우에도 세속정부나 법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비그리스도인이며 장래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은 세상, 아니 한 나라 또는 한 집단을 다스리는 기독교 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언제나 선한 자들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다. (Luther, 1961: 444)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속의 칼과 법이 필요 없는데 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정신은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는 필요치 않지만 이웃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칼은 온 세상에 대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죄를 벌하며 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주 기꺼이 칼의 통치에 복종하며 세금을 내며 권세 있는 자들을 높이며 정부를 촉진시키는 일을 돕고 이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정부가 존중과 두려움 속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한다. (Luther, 1961: 446)

이처럼 제1부에서 루터의 세속정부와 법의 존재의의와 그리스도인의 복종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제2부로 넘어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루고 있다. 세속적인 권세의 범위가 너무 확장되어서 하나님나라와 그 통치를 침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권세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며 그 손길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세속정부는 생명과 재산, 이 땅 위에서의 외적인 것에만 미치는 법을 갖고 있다.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다르실 수 없고 다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 권세가 영혼에 대한 법을 규정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를 침해하고 영혼들을 그릇 인도하고 파괴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믿음과 불신은 각자의 양심의 문제이고 이것은 세속권세를 축소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세속 권세는 자기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그 일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대로 이것 또는 저것을 믿도록 허용해야 하고 강제로 사람들을 구속하여서는 안 된다. (Luther, 1961: 457-60)

이처럼 루터는 세속정부는 외적인 것에만 미칠 수 있으며 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세속권력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시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땅에 있고 이 땅의 세상나라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은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아래 있다....사람들은 오직 외적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이것은 성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할 때와 똑같은 의미이다. 이를 통하여 베드로는 세상정부에 대하여 제한을 분명하게 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행한다면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말씀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Luther, 1961: 463)

루터는 이 처럼 제2부에서 세속권력의 한계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제3부로 넘어가서 제후들이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세속법의 적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법들이 아무리 선하고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법들은 모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에 있어서 예외가 있는데, 이 때 법들은 강제로 집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제후는 칼과 마참가지로 법을 손에 굳게 부여잡아야 하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온건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함으로써 이성언제나 모든 법을 통제하고 모든 법에 대한 최상위의 법이자 통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uther, 1961: 469)

중세 교회법에 존재하던 형평법(equity law)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장면과 이성을 근거로 한 법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은 루터가 여전히 중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루터는 이어서 제후의 네 가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는 참된 신뢰와 진실한 기도, 둘째, 자신의 신민들에 대하여는 사랑과 그리스도인다운 섬김, 셋째, 자신의 참모들과 통치자들에 대하여는 열린 마음과 결립이 없는 판단, 넷째, 악행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합당한 열심과 확고부동함. (Luther, 1961: 477)

제후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도 그의 백성들을 그를 따라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것을 원하는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Luther, 1961: 476). 앞서 제2부에서 세속권력의 한계에 관한 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 2. 두 왕국론의 함의

### (1) 존재상호간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나라를 동등하게 대립하는 두 왕국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는 존재, 권위, 사회에 대한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거부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세시대에는 모든 피조물은 그 구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광범위한 존재의 사슬구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인간, 자연세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물의 본성상 어느 존재는 다른 존재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 있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을 구별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교황의 황제에 대한 우위, 사제의 평신도에 대한 우위, 교회법의 시민법에 대한 우위, 교회의 국가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Witte, 2002: 106).

그러나 루터의 두 왕국론은 이러한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변화시켰다. 두 왕국을 구분함으로써 루터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을 엄격하게 구

분했다. 루터는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간의 연속성이 단절되게 되었다고 보았다(Herr, 1972: 59).<sup>5)</sup> 여기서는 신적인 위계질서(heavenly hierarchy)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며, 세상나라에는 일종의 '가면'(mask)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신다. 인간은 세상의 나라에 태어나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Witte, 2002: 106-7).

헤르(Herr)나 비트(Witte)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루터가 두 왕국을 구분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에 있다는 점은 루터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악하고 수 천 명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아무도 아내와 자녀를 지키거나 스스로를 유지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상은 혼돈으로 변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두 정부를 정하셨다.  
(Luther, 1961: 443)

루터는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나라가 자연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존재의 사슬구조도 존재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의 사슬구조는 중세와 같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고 보았다. 즉, 세상의 나라에 있는 모든 인간과 제도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보았다. 하나님과 이들 인간 또는 제도 사이를 매개하는 별도의 존재를 부인했다(Witte, 2002: 107). 루터가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가정

---

5) 헤르(Herr)는 루터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나라를 구분한 것은 신약 성경에 대한 주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하나님나라의 새로운 법을 담고 있는 산상수훈은 자기사랑의 법칙을 따르는 세상나라에서는 온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 왕국의 간극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죄이다(Herr, 1972: 59).

및 다른 지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칼이나 정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Luther, 1961: 452)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존재 상호간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법의 세 가지 용도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 루터는 이와 연결하여 왜 하나님은 법을 허용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다시 말해 '법의 용도'(use)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기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과 '법에 대한 순종'이 모두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로마 가톨릭에서 법이 왜 필요한가를 묻는 것은 믿음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Berman, 2003: 76).

루터는 앞서 보았듯이 법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보았다. 베르만(Berman)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시민적 또는 정치적 용도이다. 형벌의 위하효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적 또는 정치적 용도는 십계명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시민법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루터는 평화가 유지되며, 상거래질서와 공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법 위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판사를 포함하여 공무원들이 그들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경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악한 시기일수록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연법은 지나치게 일반적인 성격을 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루터의 법사상은 근대 법실증주의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erman, 2003: 76).

둘째, 신학적인 용도이다. 이 점이 19세기의 근대 법실증주의와는 차이가

나는 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루터는 국가와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용도 외에도 신학적인 용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법과 자연법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실정법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함과 동시에 이를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개에 나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십계명에 대한 해석(로마서 7: 7-25, 갈라디아서 3: 19-22)을 근거로 삼았다(Berman, 2003: 76).

베르만(Berman)이 루터의 '법의 용도'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신법과 자연법 뿐만 아니라 세속법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루터의 '법의 용도'에 대한 언급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용도를 의미한 것이지,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의 용도를 의미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에 관해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용도(정치적, 시민적 용도)를 놓고 보면 루터가 이 용도를 이야기할 때에는 '모든 법'의 용도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루터의 『탁상담화』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쓰입니다. 첫째는 현세의 삶을 위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법과 규례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Luther, 2005: 202, 밑줄 친 부분은 필자)

다음으로 둘째 용도(신학적 용도)는 첫째 용도에 비하면 '율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루터의 『탁상담화』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로, 법은 영적인 용도로 쓰입니다....법의 이 두 번째 용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노골적으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정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 인처럼 영적으로 눈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 죄와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자부합니다. 이런 위선적으로 교만한 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 할 때 법만큼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Luther, Kepler편, 2005; 이길상 역, 2005: 203, 밑줄 친 부분은 필자)

그러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 루터가 둘째 용도를 '율법'에만 제한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루터가 법의 둘째 용도를 말할 때에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루터가 살던 시기는 교회법이 모든 인간의 삶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던 시기였고, 교회법과 세속법의 구별이 오늘날처럼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다.

위 두 가지 용도 외에 루터는 한 가지 용도를 더 승인하게 된다. 교육적인 용도이다.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덕을 갖춘 삶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 세 번째 용도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자세하게 발전시키지 않았다. 이후에 멜란히톤 등 루터파 신학자들이 이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게 된다(Berman, 2003: 76-7).<sup>6)</sup>

이러한 법의 세 가지 용도에 관한 분석은 형벌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근대 법의 이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벌의 세 가지 기능 중 응보적 기능은 신학적 용도의 영향을 받았고, 일반 예방적 기능은 시민적, 정치적 용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별 예방적 기능은 교육적 기능의 영향을 받았

6) 루터가 법의 제3용도를 인정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대립이 있다(권호덕, 2003: 77-79 참조).

다는 것이다(이에 관해 자세한 설명은 권호덕, 2003: 101-22 참조).

### (3) 신법과 세속법의 관계

루터의 두 왕국론이 기존의 가톨릭신학과 차이가 나는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세속법 뿐만 아니라 자연법과 신법도 세상왕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이다. 루터는 법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실재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법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았다(Berman, 2003: 75).

그러나 루터는 신법과 세속법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했다. 루터는 십계명이 신법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세속법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세속의 통치자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신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점에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루터는 이러한 정의의 원리가 십계명에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보았다(Berman, 2003: 74; Welzel, 1990: 151). 이러한 루터의 입장은 그의 『탁상담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살도록 정해주신 땅에서만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의식을 지켜야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와 규례들을 지켜야 합니다. 법조문에 차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항을 필수적인 것으로 주장하려면 나머지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모세에게 맡겨두고, 모세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본성에 심어두신 것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길 것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것을 가르치고 명하는 십계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Luther, 2005: 201, 밑줄 친 부분은 필자)

루터가 이처럼 십계명을 세속법의 궁극적 근거로 중시하고 있는 것은 세속 정부의 두 가지 책임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제후들은 두 가지 책임을 갖는다고 보았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책임이 그것이다(Witte, 2002: 112). 이는 정확히 십계명의 핵심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루터는 또한 정의가 이보다는 덜 완전하기는 하지만 로마법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로마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었지만 죄성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성의 구현체였다(Berman, 2003: 74).

#### (4) 세속정부에 대한 복종의 한계

루터는 세속정부에 대한 복종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그는 세속정부는 외적인 것에만 미칠 수 있으며 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세속정부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시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루터가 세속정부가 그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는 불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동시에 세속정부에 대한 무저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Thompson 1984: 134-60). 루터가 이처럼 불순종과 무저항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루터의 주장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보자. 마이센, 바바리아, 마르크와 기타 지역에서 독재자들은 모든 곳에서 신약성경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 경우에 그들의 신민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걸고 성경의 한 페이지나 한 글자도 내놓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헤롯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헤롯처럼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처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집을 수색하여 책이나 물품을 강제로 가져간다면, 그들은 그것이

행해지도록 감내하여야 한다. 그들은 불법에 대적치 않고 참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발이나 손가락을 움직여서 그 불법을 승인하거나  
돕거나 복종하여서는 안 된다. (Luther, 1961: 464-5)

루터가 농민전쟁에 대해 반대하였던 것도 무저항을 강조하는 그의 사상이  
일관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처럼 세속정부에 대한 무저항  
을 강조하였던 것은 당시 독일을 휩쓸고 있는 급진주의자들과 동일시되고 이  
로 인해 이단으로 정죄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Skinner, 2008: 17).

### III. 두 왕국론에 대한 니버의 평가에 대한 검토

#### 1. 니버의 평가

루터의 두 왕국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있어 왔다. 보수주의의 위험  
이 있다는 점, 국가를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보는 나머지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구분함에 따라서 도덕의 이중성을 낳게 된다는 점, 각 왕국이 고유 법칙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앙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Herr, 1972: 61-2).

이러한 비판을 한 학자들은 에른스트 트뤼를치를 비롯하여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중심으로 보고  
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기독교와 문화  
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계속하여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리차드 니버는 루터의 사상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이원



론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리차드 니버의 루터에 대한 비판은 트릴치 이래의 루터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론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넷째, 리차드 니버의 루터에 대한 비판 중 주요한 내용이 법사상적인 관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최근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법학자들의 연구가 리차드 니버의 유형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루터의 두 왕국론이 역동적, 변증법적 사상에 속한 것이었으나, 그의 제자로 자처하는 많은 후진은 정적이고, 비변증법적인 것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적인 생활과 현세적인 생활을 평행적으로 분리시켜 생각하는 이원론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복음은 문화세계 안에서 사랑으로 작용한다는 루터의 상호작용론을 혼동하는 것은 큰 착오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Niebuhr, 1975: 223-4). 다시 말해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나라를 구별은 했지만 분리를 한 것은 아니며 양자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버는 루터의 이원론이 다음과 같이 활력과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중간시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현실적인 투쟁을 반영해 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능력을 밝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 실존에 있는 죄의 위력과 만연성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Niebuhr, 1975: 230)

그러나 루터의 이원론은 기독교인을 반율법주의(antinomianism)로 인도하며, 동시에 문화적인 보수주의(cultural conservatism)에 빠지게 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우선 반율법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7) 이와 같은 관점에서 쓴 논문으로 Failing and Keifert(2001), David M. Smolin(2001) 등 참조. 이 논문들이 실린 McConnell, ed.(2001)에서는 리차드 니버의 다섯 가지 유형론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기독교법사상들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

사회와 이성의 모든 법칙과 인간의 모든 행위를 상대화하는 것은 -인간적 표준에 의한 측정이 높은 낮은 간에, 모든 것은 죄 아래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교리를 통해-경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문명생활법칙을 외면할 구실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즉,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죄로 몰들어 순종하든지 죄로 몰들어 불순종하든지...이 모든 것에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Niebuhr, 1975: 232-33)

다음으로 문화적 보수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법률, 국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제도를 사회적 유대 속에서 인간이 적극적인 이웃봉사를 통해 참된 생활로 향상하게 하는 적극적인 대행기관이라고 보지 않고, 다만 일종의 제재력, 즉 범죄를 막는 제방이나 부정부적 혼란의 예방자로 보는 경우에 이 제도들이 보수주의로 흘러갈 것은 논리적 필연인 것이다. (Niebuhr, 1975: 234)

## 2. 니버의 평가에 대한 검토

니버의 루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중간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현실적인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니버의 두 가지 비판점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루터의 견해가 반율법주의로 인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루터가 법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루터는 법의 신학적인 용도를 주장했고, 교육적인 용도도 승인한 바 있다. 이처럼 법의 용도에 대한 루터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견해가 반율법주의로 인도한다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다음으로 루터의 견해가 문화적 보수주의로 인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우선 니버는 루터가 법을 이웃봉사의 도구로 보기 보다는 일종의 제재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수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루터는 세속법의 궁극적인 근거는 십계명에 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 세속법의 기본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8)</sup> 따라서 루터가 법을 일종의 제재수단으로만 이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sup>9)</sup>

또한 앞서 "세속권력의 한계"에서 루터가 밝힌 바와 같이 루터는 세속권력의 한계를 계속하여 지적하면서 이 한계를 넘을 경우에는 불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위와 같은 니버의 지적에 그대로 동의할 수 없도록 만든다. 물론 루터는 불순종의 방식이 철저하게 비폭력적일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농민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바로 '루터주의=보수주의'의 등식을 인정하는 것은 두 왕국론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루터는 신민들뿐만 아니라 세속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제후들도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고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0)</sup> 이는 루터의 견해가 자유주의적인 측면을

8) 헤켈(Heckel)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원한 신적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법'(lex caritas)이 양 왕국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다(Herr, 1972: 63).

9) 이와 관련하여 니버는 루터의 이왕국론이 이론적으로 보수주의를 표방하였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루터와 교회가 나치의 불법에 침묵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여준 보수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니버가 각 사상을 이론적으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각 사상의 역사적 맥락까지 고려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34년에 나치에 저항하여 발표된 바르멘 선언에 루터교회의 일부가 참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루터교회가 역사적으로 항상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니버는 자신의 책에서 루터의 사상이 이론적으로 보수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 점을 비판한 것이다.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루터의 법사상을 니버의 유형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있는 페어링거도 인간의 죄성에 대한 루터의 강조는 권력의 제한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Failing, 2001: 402). 이러한 점에서도 루터의 견해가 보수주의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견해는 동의하기 힘들다.

#### IV. 루터의 법사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1.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고찰

루터의 법사상에서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토대로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깊은 영향이 남아있음을 간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루터의 법사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바람직한 세속법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죄성과 일반시민의 죄성을 균형 있게 보는 법제도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의 자유주의적인 법질서는 전자의 측면, 즉 국가권력 남용의 위험성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자의 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금융위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한 금융상품들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담은 법

---

10) 루터는 제후의 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신은 세상의 시초부터 현명한 제후는 사실 드물며 경건한 제후는 더더욱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보통 이 땅에서 가장 바보들이거나 가장 악한 깡패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들로부터 최악을 예상하고 그들로부터 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Luther, 1961: 464)."

시스템을 갖지 못했던 것이 최근 금융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루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이기심'은 인간의 '죄성'의 발로인 경우가 많고, 이를 항상 '합리성'으로 미화하는 법 시스템은 부당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를 합리성의 영역으로 보아 허용하고, 어디를 죄성의 영역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과정 자체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죄성을 억제하는 주요한 법적인 원리로 '투명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법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행동을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하고 이를 통해 죄성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만드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처럼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정보의 공개의무, 이해관계인 참여의 확대 등을 하게 될 경우 법집행 자체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등 공공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을 조달하는 분야를 다루는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law) 분야에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법집행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효율성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투명성의 뒷받침이 없는 효율성의 추구는 위험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루터적인 시각에서 재해석을 하자면 투명성을 토대로 인간의 죄성을 적절하게 억제해가면서 효율성을 추구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대인, 2006 참조).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교회법을 구성해감에 있어서 늘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권력의 집중은 부패를 낳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

한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나라를 구분하고 양자간에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루터의 두 왕국론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를 논증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루터는 세상나라는 인간의 외적인 것만 규제할 수 있으며,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같은 내적인 것을 규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적인 것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독일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종교행사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계 공립학교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나, 공립학교에서의 십자가 사용 등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 등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독일의 모습은 내적인 종교자유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개입의 한계가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기독교인만 교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기독교계 대학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침해를 이유로 시정을 권고한 사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국가는 개인의 내적인 부분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루터의 사상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

11) 독일과 미국의 종교의 자유를 비교분석한 문헌(Monsma, 2009) 참조.

### 3. 세속법의 궁극적인 근거로서의 성경(특히 십계명)의 의미

루터가 세속법의 궁극적인 근거로 십계명을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십계명의 주요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이 세속법질서에서도 투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떠한 가치나 제도도 우상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나 시장 중 어느 하나도 우상시되지 않아야 하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중 어느 하나가 우상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법질서에 대한 최근의 성찰은 시장이 우상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동으로 국가를 우상시하는 법질서가 세워져서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선한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법질서가 세워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제도를 구상함에 있어서 서구선진국의 법제도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법제가 있으면 바로 전 세계적인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법제도 중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방향의 것이 아니라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복권 법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국제적인 추세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이에 관해 자세히는 김대인, 2007 참조).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들고 있는 점도 주의 깊게 볼 부분이다. 세속법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속법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훈은 세속법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도 교회 안에서 듣기 힘든 우리나라 상황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 4. 법의 세 가지 용도

법의 정치적, 신학적, 교육적 용도 중 특히 교육적 용도가 갖는 함의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법이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제도를 구상해야 하며, 법이 인간의 행동을 선도해가는 기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예상된다.

국가가 제정하는 법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윤리적인 행동양식을 강제하던 전근대적인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서 자유주의가 정착한 근대국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견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은 사회현실을 뒤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며 사회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의 역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견해라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법학자들 중에서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영향으로 법제도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들이 점차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대표적으로 Thaler, Sunstein, 2009). 이러한 추세는 법의 역할이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제도를 구상하면서도 이러한 법이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법제도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민주적인 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여기서의 '민주적인 시민'이라고 할 때에는 '책임 있는 민주적인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현실화함에 있어



서 형사적인 제재의 방법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V. 결론

루터의 법사상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두 왕국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논문은 "세속권세: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여야 하는가"를 들 수 있다. 루터는 이 논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나라를 구분하고 양자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는 복음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루터는 법의 세 가지 용도를 말하고 있다. 첫째, 시민적, 정치적 용도, 둘째, 신학적 용도, 셋째, 교육적 용도이다. 이러한 법의 세 가지 용도는 이는 근대 형법의 주요한 원리로 연결되었다.

루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속권세에 대해서는 불순종해야 하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비폭력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세속법의 궁극적인 근거는 십계명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 세속법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루터의 법사상에 대해서는 에른스트 트릴치 이후로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리처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루터의 사상이 반율법주의로 인도하며, 문화적 보수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루터가 법의 세 가지 용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속권세에 대해서 불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루터의 법사상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검토를 촉구하게 한다는 점, 중

교의 자유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를 논증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 세속법의 궁극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준다는 점, 법의 다양한 기능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루터의 사상은 칼빈주의 중심의 기독교세계관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권호덕 (2003), 『율법의 세가지 용도와 그 사회적 적용—영미 형법의 세 가지 뼈대』, 서울: 그리심.
- 김기런 (1997), "루터의 이왕국 교리에 나타난 정치사상," 『신학과 현장』, 7, 176-90.
- \_\_\_\_ (2003), "마틴 루터의 세상당국과 공권력이해," 『신학사상』, 122, 225-47.
- 김대인 (2006),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재정법제 제9권,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_\_\_\_ (2007), "복권법제의 정당화요건—재정법과 산업규제법의 관점에서—," 『행정법연구』, 18, 527-48.
- 김주한 (2000), "마르틴 루터의 인간이해—그의 두 왕국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방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9, 159-95.
- \_\_\_\_ (2002), "루터 종교개혁의 문화적 의미—Ernst Troeltsch의 관점에서," 『종교와 문화』, 8, 163-82.
- \_\_\_\_ (2003), "마틴 루터의 정치신학에서의 자유의 가치—위르겐 몰트만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회사회학회지』, 13, 173-98.
- 류지영 (2007), "모세 오경에 나타난 법체계와 법사상," 『법학연구』, 25, 25-48.
- 손규태 (1972), "루터의 율법과 복음—율법의 제3용법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169, 94-102.

- 윤웅진 (1993), "루터의 두 왕국론," 『한신논문집』, 10, 131-48.
- 이경직 (2002), "히브리와 헬라의 율법 개념: Torah와 Nomos," 『기독교사회윤리』, 4, 191-214.
- 이국운 (2006), "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 『신앙과 학문』, 11(2), 135-68.
- 장문강 (2000), "루터 정치사상의 그리스도교적 기초와 농민전쟁," 『정치사상연구』, 3, 221-46.
- 한철 (2008), 『로마와 예루살렘-대화』, 서울: 도서출판 글누리.
- 홍기원 (2007), "초기 칼비나즘의 정치사상 연구서설-신법과 인법, 그리고 최선의 정부형태," 『법사학연구』, 36, 277-304.
- 황정욱 (1999), "루터의 두 왕국론과 농민전쟁," 『신학연구』, 40, 331-51.
- 홍치모 (1975), "독일 인문주의와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지남』, 171, 101-10.
- Berman, Harold (2003), *Law and Revolution II*,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 Failing, Marie A. and Keifert, Patrick R. (2001), "Making Our Home in the Works of God: Lutherans on the Civil Uses of the Law," in Michael W. McConnell, et al. ed., *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err, Theodor (1972), *Zur Frage nach dem Naturrecht im deutschem Protestantismus der Gegenwart*, München/Paderborn/Wien: Verlag Ferdinand Schöningh.
- Luther, Martin, "On Secular Authority: How Far Should It Be Obeyed?," John Dillenberger, ed. (1961), *Martin Luther-Selections from His Writings*, Anchor Books; 이형기 역(1994), 『루터 저작선』,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Luther, Martin, Thomas S. Kepler, ed. (2005), *The Table Talk of Martin Luther*, Dover Publications; 이길상 역 (2005), 『탁상담화』,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Monsma, Stephen and Christoper, Soper (2009), *The Challenge of*

- Pluralism—Church and State in Five Democracies* (2nd e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Mühlen, Karl-Heinz zur (1999), *Reformation und Gegenreformat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정병식·홍지훈 역(2003),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Niebuhr, Richard (1975), *Christ & Culture*, Harper & Row Publishers, 김재준 역 (2005),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chwarz Reinhard (1986), *Luther: Die Kirche in ihrer Geschichte* (Bn. 3, Lfg. 1); 정병식 역 (2007), 『마르틴 루터 슈바르츠의 마틴 루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Skinner, Quentin (200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 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inmüller, Wilhelm (1963), *Evangelische Rechtstheologie (v.1)*, Köln/Graz: Böhlau Verlag.
- Smolin, David M. (2001), "A House Divided? Anabaptist and Lutheran Perspectives on the Sword," in Michael W. McConnell, et al(2001). ed., *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Thaler, Robert and Cass Sunstein (2009), *Nudge*; 안진환 역(2009), 『넛지』, 서울: 리더스북.
- Thompson, Cargill (1984), *The Political Thought of Martin Luther*, 김주한 역 (2003), 『마르틴 루터의 정치사상』, 서울: 민들레책방.
- Troeltsch, Ernst (1931), *Soziallehren der christliche Kirchen und Gruppen*, translated by Olive Wyon, (1992),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 2),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Welzel, Hans (1990),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박은정 역 (2001),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서울: 삼영사.

Witte, John (2002), *Law and Protestantism – The Legal Teachings of the Lutheran Reform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Martin Luther's Legal Thought

— Focusing on "Two Kingdoms Theory"—

Daein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legal system is heavily influenced by civil law system, especially by German law system, and Martin Luther's legal thought is evaluated as having influenced the German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we need to research on Martin Luther's legal thought. The essence of his legal thought can be typically found in his thesis, which is titled "On Secular Authority: How far should it be obeyed?" in which he talks about "two kingdoms theory."

In his thesis, Luther differentiates heavenly kingdom and earthly kingdom, and argues that each kingdom is ruled by different principle. Heavenly kingdom is ruled by gospel, and earthly kingdom is ruled by law. Law is not directly related with salvation of each person. However, it has its own meaning. Luther argues three uses of law. First, civil or political use, second, theological use, and third, educational use. This theory influenced the principles in modern criminal law. Luther states that each citizen should not conform to secular authorities who do not abide by God's law. However, he emphasized that this non-obeyance should be conducted in a non-violent manner.

There are many critics on Martin Luther's legal

thought. For example, Richard Niebuhr, in his book *Christ and Culture*, criticized Luther's political thought and said that this theory leads to anti-nomianism and cultural conservatism. However, this argument should be rebutted, because Luther suggests three uses of law, and advocates on non-obeyance of citizen in excess of power of civil authority.

Luther's legal thought gives many lessons to contemporary Korea. First, it urges us to see human depravity more deeply. Second, it shows limits of civil authority's power to engage in citizen's religious freedom. Third, it gives us ultimate source of civil law. Fourth, it allows us to see various uses of law in balance. Also Martin Luther's legal thoughts is evaluated highly as it enriches and complements christian world view based on Calvinistic theology.

Key Words: Martin Luther, Two Kingdoms Theory  
Three Uses of Law, Divine Law, Natural Law,  
Civil Law